

공공도서관의 휴먼라이브러리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노원구의 휴먼라이브러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uman Library of the Public Libraries - The Case of Human Library in Nowon-Gu, Seoul -

김민영,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vmfhdlxm@hanmail.net

황인혜,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goat0528@naver.com

Minyoung Kim, Dept. of LIS, Sungkyunkwan University

Inhye Hwang, Dept. of LIS, Sungkyunkwan University

휴먼라이브러리는 사람이 정보자료원이 되는 신개념의 도서관서비스이다. 최근 들어서는 기업 및 공공·민간단체에서도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과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원정보도서관이 상설로서는 최초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원정보도서관의 노원 휴먼라이브러리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휴먼라이브러리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휴먼라이브러리를 개혁으로 보고 개혁확산이론을 적용하여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휴먼라이브러리의 확산에 있어서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방법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정보센터로 다양한 역할을 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춘 참고 및 전문자료를 제공하고 교육 자료를 통한 자습센터의 역할과 더 나아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사연구센터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의 교육적·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야하는 공공도서관의 의무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몇몇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들의 다층적인 정보요구에 부응하여 휴먼라이브러리를 도입하였다. 휴먼라이브러리는 2000년에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원정보도서관이 상설로서는 최초로 2012년 3월부터 휴먼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원휴먼라이브러리를 중심

으로 그 면면을 문헌·면담조사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살펴보고 휴먼라이브러리를 하나의 개혁으로 보아 Rogers의 개혁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s theory)을 적용해보았다.

1.2 연구목적

휴먼라이브러리 인적구성원들은 재능과 경험을 나누어 정보요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소통한다.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휴먼라이브러리를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지역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설하고자 하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휴먼라이브러리의 개념과 특징 및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와 공공도서관의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의 개혁으로서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질적 향상된 휴먼라이브러리의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또한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휴먼라이브러리의 개념과 특징 및 이용자의 정보요구

덴마크 사회운동가 Ronni Abergel에 의해 창안된 휴먼라이브러리(human library)는 사람이 정보자료원이 되는 신개념의 도서관서비스이다. 즉, 책이 아닌 사람을 대출받아 면대면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 교환을 한다. 이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책(이하 휴먼북)으로 지칭되고 이용자는 선별되고 섭외된 휴먼북 목록에서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사람책 도서관이나 리빙 라이브러리라고도 명명되기도 한다. 국내에는 2010년 최초로 리빙 라이브러리로 도입되었으나 본질적 개념에는 큰 차이가 없다(조찬식, 2014).

휴먼라이브러리의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정보자료원이 사람이라는 것이다. 휴먼북은 기존의 도서관 자료로는 할 수 없었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노우진 2013; 조찬식 2014). 두 번째 특징은 무형식이다(황희선, 2014). 정보자료원이나 주제에 제약이 없다.

또한 특수한 장소나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박나원 외, 2015). 세 번째 특징은 다양성이다. 형식이 없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주제, 장소, 참여자 등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다(황희선, 2014). 네 번째 특징은 저예산고효율이다(희망제작소, 2013). 휴먼북은 자원봉사가 원칙이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다. 앞의 특징들로 알 수 있듯이 인적·물적 자원에 큰 예산이 필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먼라이브러리는 도서관 홍보, 자원봉사와 도서관서비스 영역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용자의 정보요구는 앞에서 언급한 휴먼라이브러리 첫 번째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휴먼북과의 직접 대면을 통해 언어적·비언어적 행위를 모두 관찰 가능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를 조찬식(2013)은 휴먼라이브러리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정확성, 동시성, 구체성, 종합성 등을 구현한다고 정리했다. 즉, 이용자는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 동시성, 구체성, 종합성, 복합성, 타당성 등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휴먼라이브러리의 인적 자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2.2 개혁확산이론

개혁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s theory)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사회체계 내에서 어떻게 채택되는지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론으로 Rogers에 의해 정리되었다. Rogers(2005)는 사람들이 새롭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개혁으로 인지하는 특성으로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적합성(Compatibility), 복잡성(Complexity), 시험가능성(Trialability), 관찰가능성(Observability)을 제시하였다. 이는 새로운 개혁이 종래의 아이디어보다 상대적 이점이 클수록, 기존의 가치나 경험 그리고 필요에 부합할수록, 복잡하지 않을수록, 한

정된 범위 내에서 시험해 볼 수 있을수록, 관찰이 쉬울수록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더 빠르게 채택됨을 뜻한다.

3. 현황분석

3.1 노원휴먼라이브러리

휴먼라이브러리는 정보자료원이 사람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띄기 마련이다. 또한 휴먼라이브러리는 도서관과 지역 사회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찬식, 2014). 따라서 휴먼라이브러리는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기 매우 적합하다. 실제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경우 상설도서관으로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휴먼북이 노원구 거주민이라는 지역성을 띤다(양시모, 2013).

노원구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구로 5개의 구립도서관과 약 30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전국에서 영구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고, 새터민, 다문화가족,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정성원 외, 2014).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노원지역 주민의 과반수가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하여 복지적 성격의 나눔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운영 사업의 경우 나눔·소통·공감 사업으로 크게 나뉜다. 각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사업

나눔	소통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모듬 열람 • 찾아가는 휴먼 라이브러리 • 휴먼북과의 대화 • 휴먼북 초대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공감학교 • 가족소통상담실 • 소통활동가양성학교 • 가족소통캠프 • 소통휴먼라이브러리 • 인권휴먼라이브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 100℃ • 이달의 북토크 • 인문학 여행토크

주요사업을 통해 파악할 수 있듯이 노원휴

먼라이브러리는 다른 휴먼라이브러리와 다른 차별성을 가진다. 그 첫 번째가 앞서서도 언급한 사회 복지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 예로 ‘청소년힐링멘토단’의 경우, 노원구에 거주하는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힐링 체험활동을 지원했다. 보통 지역의 특성이 공공도서관의 특성에 영향을 끼치듯이 노원구의 지역 특성은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운영과 긴밀하다. 두 번째가 독자적 조직이라는 점이다. 노원정보도서관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장을 따로 두고 있으며 운영이나 예산관리 또한 독립적이다. 운영주체는 사서가 아니라 노원구 내 시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다. 관장은 상임운영위원으로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양시모, 2013).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2012년 3월 21일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활발히 운영 중이다. 개관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된 ‘휴먼북과의 대화’ 행사 참여 수는 휴먼북은 790번, 독자는 4,551번 참여하였고 휴먼북 수는 608명(2015.6)으로 그 수가 상당하다. 하지만 휴먼북으로 참여도를 고취할 소속감 강화와 자발성 독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불어 휴먼북 주제 분류를 다양화와 접근 취약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향후 과제가 있다(양시모, 2013).

3.2 개혁확산이론을 적용한 현황분석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현황을 살펴보면,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휴먼북은 2012년 299명, 2013년 505명, 2014년 650명, 2015년 6월 기준 608명으로 비교적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휴먼북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되기에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개혁채택자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그들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노원휴

먼라이브러리 2014년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사업·행사에 참가한 인원은 7,349명에 달한다. 휴먼북과 이용자의 재참여 및 이용 의사에 있어서도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직원과의 면담 결과,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노원휴먼라이브러리가 단발성이 아닌 시간을 두고 공공도서관이라는 특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체계의 구성 사이에서 개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된다. 벤치마킹도 활발하여 작년의 경우에 방문기관만 26곳이며 방송 취재 및 방영은 12회에 이른다.

이는 노원휴먼라이브러리가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와 달리 정보자료원과 이용자 간 직접 소통을 통한 정보 교환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이 높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상대적 이점이 있으며, 원하는 정보를 휴먼북 목록에서 선택하는 대출방법이 이용자의 기존 가치와 경험 그리고 필요에 부합한다고 느끼는 적합성 또한 갖췄기 때문이다. 게다가 홈페이지에서 신청도 가능하여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데다 사람과의 대화라는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복잡하지 않는 방식으로 휴먼북 대출이 부담스러운 이용자를 위한 강연을 제공하는 시험가능성과 마지막으로 휴먼북 목록이 모두 오픈되어 있고 개방된 장소에서 소통이 이루어져 관찰가능성도 갖추고 있다.

이로써 개혁확산이론을 바탕으로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현황을 살펴 본 결과, 휴먼라이브러리는 개혁이다. 이는 전 세계적 확산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개념과 특징 그리고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살펴보고 노원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영역을 사회복지와 문화 공동체로

확장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개관한지 이제 3년이 지나 운영 초기단계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행착오를 통해 과제들을 해결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하나의 개혁으로서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여 최근 들어 급속히 파급되는 휴먼라이브러리의 확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노원 휴먼라이브러리 2015년 전국도서관운영평가(2014년도 실적보고서)」 (2015.07.04)
 노우진 2013. 국회도서관 휴먼DB의 발전방향. 국회도서관, 50(5), 1-13.
 박나원 외 2015.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의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183-191.
 양시모 2013.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도서관, 50(5), 14-21.
 정성원 외 2014. 국내 최초 공공기관에서의 상설 운영 노원휴먼라이브러리. 2014 휴먼라이브러리 심포지엄, 37-67.
 조찬식 2014. 휴먼라이브러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성북구의 휴먼라이브러리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5(3), 9-28.
 희망제작소 2013. 덴마크와 독일, 유럽 평생 학습 현장에서 배운다. 서울: 희망제작소, 2013-09.
 황희선 2014. 휴먼 라이브러리 기획 과정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